

[무역학개론]

• 주제 : 무역의존도에 관한 개념과 측정방법을 기술하고, 무역의존도가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름: 김재환>

I. 무역의존도에 관한 개념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의존도는 국민총생산(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을, 수입의존도는 국민총생산(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 혹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써 계산됩니다.

수출입총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국민소득 혹은 국민총생산과 대비하여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각각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나 경제발전의 정도 등의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무역이 외국의 경기변동 등 경제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국민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역의존도는 구조변동기에는 변화가 심하지만 보통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외국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반대로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자급자족도가 높거나 외국경제에 대한 관계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54~61년 평균이 14.5%,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2~66) 중의 평균이 24.7%,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7~71)중의 평균이 42.1%로서 점차 높아지고 있고 1974년의 경우 7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수출이 비약적으로 신장됨과 아울러 기간산업의 육성과 확충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원재료를 많이 수입한 결과입니다. 그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53%대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 64.9%, 2000년 72.8%로 증가했고 다시 2003년 61.6%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 반면, 해외경기의 호조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출촉진 등으로 수출비중이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업 및 전기, 전자 등 조립, 가공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수입 역시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현상은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와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역의존도 = [무역액(수출액 + 수입액)] ÷ 국민소득(또는 GNP)

수출의존도 = 수출액 ÷ 국민소득(또는 GNP)

수입의존도 = 수입액 ÷ 국민소득(또는 GNP)

II. 수출과 수입 의존도 측정방법의 기술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가 완성한 국내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GDP = \text{소비(지출)} + \text{정부지출} + \text{기업자본지출} + \text{순수출(수출-수입)}$$

(GDP 계산시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외국인 외국법인 모두 포함)

관련이 있지만 다른 지표인 국민총생산(GNP : Gross National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가 소유한 모든 완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GNP = \text{소비(지출)} + \text{정부지출} + \text{기업자본지출} + \text{순수출(수출-수입)}$$

(GNP 계산시 외국인 거주자 및 기업이 국내투자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은 빼고 해외에 거주한 내국인과 내국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더합니다.)

또 다른 지표로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으로서 한 국가 국민의 소비와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NI는 GNP에서 교역조건의 변화가 국민들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조정해준 숫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반영합니다.

$$GNI = GNP + (\text{환율이나 수출입단가가 바뀌면서 생기는 무역손익 : 교역조건})$$

우리나라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서 무역의존도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OECD도 무역의존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많이 쓰이는 지표는 GDP(국내총생산)입니다.

<무역의존도(수출입의 대 GDP비율)> _ OECD(통계청)

국가별	2019		2020		202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대한민국	32.84	30.49	31.16	28.43	35.60	33.98
이스라엘	14.70	19.25	12.32	17.07	12.49	19.14
일본	13.77	14.07	12.72	12.61	-	-
튀르키예	23.76	27.64	23.56	30.49	27.63	33.29
북아메리카						
캐나다	25.76	26.56	23.74	25.53	25.49	25.30
멕시코	36.28	36.82	38.36	36.18	38.22	40.41
미국	7.69	12.01	6.82	11.52	7.63	12.77
남아메리카						
칠레	24.69	25.07	29.31	23.43	29.86	29.08
콜롬비아	12.22	16.31	11.47	16.09	12.82	19.44
코스타리카	18.42	27.28	19.82	24.04	24.10	32.25
유럽						
오스트리아	40.15	41.52	39.10	39.80	42.49	45.90
벨기에	83.46	80.12	80.96	76.18	90.90	85.05
덴마크	31.97	28.20	30.45	27.50	31.46	30.55

에스토니아	51.86	58.06	53.38	56.58	59.34	65.11
핀란드	27.36	27.45	24.36	25.11	27.40	28.72
프랑스	20.92	23.99	18.58	22.10	19.91	24.31
독일	38.30	31.74	35.94	30.46	38.64	33.62
그리스	18.48	30.41	18.64	29.60	21.81	35.06
헝가리	75.70	73.74	76.98	74.02	77.86	77.89
아이슬란드	21.01	26.42	21.10	26.23	23.52	30.70
아일랜드	42.50	25.33	42.29	23.44	38.09	23.91
이탈리아	26.74	23.62	26.41	22.55	29.06	26.22
라트비아	45.78	55.25	48.56	54.81	53.57	62.89
리투아니아	60.61	65.38	58.10	58.99	-	-
룩셈부르크	23.44	34.57	18.87	28.85	19.17	29.77
네덜란드	77.85	69.84	73.82	65.12	82.15	74.43
노르웨이	25.39	21.07	23.32	22.21	33.06	20.18
폴란드	44.63	44.41	45.90	43.85	50.13	50.20
포르투갈	27.94	37.31	26.91	34.08	30.09	39.10
슬로바키아	85.02	85.48	82.38	80.24	90.15	90.10
슬로베니아	82.95	81.23	83.66	78.80	92.73	93.45
스페인	23.98	26.76	24.06	25.45	26.97	29.34
스웨덴	30.08	29.78	28.72	27.70	30.24	29.79
스위스	42.90	37.97	42.45	38.81	46.77	39.87
영국	15.98	24.19	14.49	23.15	14.69	21.77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9.47	15.92	18.89	15.95	22.35	16.93
뉴질랜드	18.51	19.85	18.38	17.55	17.90	19.94

※ 무역의존도 = 수출입총액(통관기준) ÷ GDP(또는 GNI) / 위 자료는 GDP기준

OECD 무역의존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총 37개 나라 중 2019년과 2020년에는 16위, 2021년에는 15위입니다. (무역의존도 높은 순위)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으며,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멕시코와 비슷하거나 유럽에서는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위의 통계에 포함된 국가들만을 기초하여 판단)

<GDP 대비 수출입비율> _ 한국은행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율	53.0	54.1	69.3	71.8	95.5	82.2	76.9	80.5	82.9	80.1	72.9	84.8

1) GDP 대비 수출입비율 =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

2) 수출입총액은 2015년 기준년 국민계정 자료임.

3) 최근 연도는 잠정치임.

한국은행의 자료와 OECD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OECD의 자료는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고 한국은행 지표는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수출입총액은 국민계정기준(회계적, 통계적, 미시, 거시경제적 수식과 방법으로 계산)으로 산정된 자료이며, OECD 자료는 통관기준(통관절차 신고 시 파악된 수출입 금액)을 근거로 파악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결과 비율 값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 국외수취요소소득

자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2) 국외지급요소소득

외국의 노동과 자본이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무역의존도 계산식의 수출입총액은 통관기준, 국민계정기준 등 기준이 다양하고, 분모로 국내총생산(GDP)을 취할 것인가 국민총소득(GNI)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음.

다만 동일한 분모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비교 또는 역사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의미를 가짐.

무역의존도 계산에 대한 통일된 기준(표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이용자들은 각 기관의 산정 기준을 잘 살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Ⅲ. 무역의존도가 개별국가(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및 견해

수출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출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반면, 수입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국내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수출과 수입이 많다는 것은 생산과 판매에서 외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출입의 크기는 한 국가의 대외의존도와 대외개방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외수취요소소득은 자국의 자본과 노동자들이 외국의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나타내고, 반대로 국외지급요소소득은 외국의 자본과 노동자들이 자국의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국외요소소득은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 지표들 역시 한 국가의 대외개방도와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 수입품목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확대는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특화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속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도 더불어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외요소소득도 수출입액의 약 5%대를 유지하면서 수출입액과 비슷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1990년 53.0%에서 2021년 84.8%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79.4%로 미국의 35.5%, 일본의 34.1%, 프랑스의 76.2%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고 국제무역상황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국가들간의 무역블록화로 인하여 대 중국 무역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그로인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 중국 수출액은 132.4억 달러로 지난달보다 2.5%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공급망 문제들과 더불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은 전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출을 더욱 끌어올리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에너지 가격의 안정과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중국내에 불고 있는 자국제품 우선주의와 더불어 중국내의 한국제품 소비 감소는 현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의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개척과 더불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무역의존도 리스크를 줄여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IV.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 무역의존도 _ 박문각

경제학사전(2011.3.9.) _ 박은태 _ 경연사

출처: 관세청, 한국은행, IMF, The World Bank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2022. 8,

한국은행 「<https://ecos.bok.or.kr>」 2022. 8,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22. 7,

The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2022.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